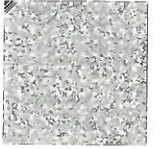


# 시온 주보

제2316호 2020년 12월 13일(나혜)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 입당송 | 필리 4,4.5 참조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 제1독서 | 이사 61,1-2 7.10-11

## 화답송 | 루카 1,46L-48.49-50.53-54(© 이사 61,10 7L 참조)

◎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그분이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네. ◎

## 제2독서 | 1테살 5,16-24

## 복음환호송 | 이사 61,1 참조(루카 4,18 인용)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 복음 | 요한 1,6-8.19-28

## 영성체송 | 이사 35,4 참조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우창원 아우구스티노 신부 | 바보의나눔 사무총장

# 기다림, 만남 그리고 나눔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3주나 흘렀습니다. 지난 한 해는 예기치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느끼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두움을 없이 하며, 동정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옵소서”라는 성가 가사처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기도해봅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아름다운 마음 자세로 구세주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 제3주일에는 장미색 제의를 입습니다. 이 제의가 나타내는 색깔의 의미는 엄격한 보속 중에 성탄의 서광을 앞두고 기쁨과 휴식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대림 제3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회개와 속죄를 통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오시는 그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1독서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이사 61,1)는 말씀을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며 안식처가 되어주시는지, 그분의 오심이 진

정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때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이 마치 뜬구름같이 여겨진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요한 1,10)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하십니다. 주님과 만남이 외적으로 반드시 드러나지 않는 것 같더라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림 시기가 특별한 기다림의 시간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의 기다림은 신앙생활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계속되고, 반복되는 만남일 것입니다.

오늘은 자선주일입니다. 가장 비천한 이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당신 사랑을 ‘올인’하시며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상을 향한 ‘사랑의 올인’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눌 때 그 사랑은 더욱 커지고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물자연휴양림, 제주

“땅이 새순을 돌아나게 하고 정원이 싹을 솟아나게 하듯 주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 의로움과 찬미가 솟아나게 하시리라.”(이사 61,11)



한겨울의 긴 추위와 빙설을 헤치고 복수초가 그 고고한 자태를 드러내면 봄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습니다. 하느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고 정의로운 시대들 열어놓으려 하십니다. 언 땅에서도 새 싹을 돋게 하듯이 하느님의 의로움과 하느님을 향한 찬미가 모든 민족들에게 널리 펼쳐질 것입니다.

김대환 안드레아 | 가톨릭사진가회



유송자 데레사 | AFI(국제 가톨릭 형제회)

## 더 높은 곳을 바라보아라

제가 속한 AFI(국제가톨릭형제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적 삶을 이루는데 일생을 봉헌하기로 서약한 평신도 공동체입니다. 회원들은 교육이나 상담, 사회복지, 사회운동과 사회개발, 의료복지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며 교회와 세상 안에서 다양한 사도직을 수행합니다.

꽤 오래전, AFI 국제생활 체험을 위해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낼 때, 단체의 국제 비서처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머물던 한 한국 회원과 같이 당시 단체의 국제 비서로 일하고 있던 다른 AFI 회원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추기경 회의를 하셨던 故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회의를 마치신 후, AFI 국제 비서처를 방문하셨으므로 우리는 함께 산보를 나갔습니다.

“오, 밤송이 좀 보세요! 아름이 벌어지고 있어요!”

“와! 그러네! 밤알이 떨어지려고 해!”

유럽에는 밤나무가 귀해서 오랜만에 보는 밤송이가 더욱 반가웠던지, 어린아이들처럼 들떠서 외치는 AFI들 사이로, “더 높은 곳을 바라보아라” 하시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특유한 저음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김 추기경님의 말씀대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니, 밤나무 잎 사이로 눈부시게 빛나는 파란 하늘, 먼 곳에 은색 선을 그리며 지나가는 작은 물체가 보였습니다. 코앞에 매달린 밤송이에 흘러서 그 이상 높게도 넓게도 보지 못했던 우리들은 “아! 비행기...” 하며 머쓱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저는 가끔 가슴이 막힐 것 같거나 삶이 답답해질 때, “더 높은 곳을 바라보아라” 하신 추기경님의 말씀을 떠올리곤 합니다. 더 높은 곳이란, 다만 빛나는 은색 줄을

긋고 지나가는 비행기나 파란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빛의 근원을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임을 깨달은 것은 한참이 지난 후입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요한 1,1-5)

해마다 예수님 성탄 날에 봉독되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있으면 “더 높은 곳을 바라보아라”고 하시던 故 김수환 추기경님의 음성도 함께 들리는 듯합니다.

빛과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하늘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그 높은 곳이 바로 내 주변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억압받으며, 힘없는 소외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나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 41.10)



김경희 아녜스 | 가락동성당

# '신학생' 사제 지망자 급증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학교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제목만 보더라도 참 흐뭇한 글입니다. 1980년 1월 27일 자 서울주보의 3면 교회 소식란에 눈에 띄는 제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서품일자 결정> “금년도 서울대학교 사제서품 예정자들은 오는 2월 25일 오후 2시 명동대성당에서 김 추기경 집전으로 사제 품에 오른다.”

경갑실(요한), 이기락(다테오) 허근(발도로메오) 3명의 부제가 사제품을 받게 되면 서울대학교의 사제는 187명이 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대신학교 입학식 때 서울대학교 소속 신학생은 20명 이상이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중에 약 10~20% 정도만 사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신입생이 많아야 사제 서품자들도 많은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1980년도 들어서면서 서울 지역이 커가는 동안 지역에 맞게 성당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사목자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도 컸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직 개발이 안 된 어느 텅 빈 운동장 같은 곳에서도 사제를 파견해서 임시 성당을 마련하고 미사를 시작하면 신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사제를 양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아래에 있는 '신학교 소식'에서 <사제 지망자 급증>이란 제목이 다행스럽습니다. 내용을 보면 1979년에는 서울대학교 사제 지망 입학생이 27명(전체 사제 지망생 72명 중)인데 비해 1980년에는 44명(전체 사제 지망생 103명 중)으로 서울대학교는 물론 전체 사제 지망생 숫자도 꺾뺀 듯 뛰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전체 사제 지망생도 30명 이상 늘

### ★ 서품일자 결정

금년도 서울 대학교 사제서품 예정자들은 오는 2월 25일 오후 2시 명동 대성당에서 김 추기경 집전으로 사제 품에 오른다.

작년 3월 4일 부제품에 오른 경갑실(요한), 이기락(다테오), 허근(발도로메오) 3명이 사제로 서품 되므로 서울 교구 사제 총수는 187명이 된다.

### 신학교 소식

#### “금년도 사제지망자 급증”

##### 1. 대신학교 응시자

1980년도에 대신학교에 응시한 120 명의 지원자들중 교구신학생은 82명 수도회신학생은 21명이며 사제 지망자가 아닌 평신도, 수도자는 17명이라고 한다. 교구 신학생들중에서 서울 교구에서는 44명의 학생이 지원하였는데, 그들 중 소신학교 출신이 11명이고 나머지 33명은 예비신학생 및 일반고교 출신으로 사제지망을 한 학생들이다. 한편 작년도 지원자들은 총 72명으로 일반학생을 제외한 63명의 사제 지망생중 서울대학교 소속이 27명이었다. 지원자들의 분포를 간단히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80년도 (79년도)
응시자 총수	120명 (72명)
서울 교구 신학생	44명 (27명)
성신교교(소신학교)출신	11명 (9명)
일반 고교 및 예비신학생 출신	33명 (14명)

었고, 서울대학교도 14명이 더 늘은 것으로 나옵니다. 유럽 교회에서 사제 지망생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오히려 1980년 이후에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1980년에는 일반 고교 및 예비신학생 출신의 숫자가 소신학교 입학생보다 3배가 많습니다. 새로운 성소 양성의 필요성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서울대학교의 사제 지망생과 매년 사제 서품 숫자는 1980년 이후부터 급증하는데, 이는 서울대학교의 폭발적 성장과 비례하고 있습니다.

1984년 제가 서품을 받았을 때만 해도 보좌신부가 있는 본당은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통계에 따르면 사제 한 명이 4~5천 명을 사목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성소후원회는 기도 봉사와 함께 신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데, 이쉽게도 성소후원회가 결성된 본당은 전체 본당의 50%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오늘날 성소후원회의 발전은 성소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과 함께 많은 신학생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사를 받은 교회에서 외국에 선교사를 파견할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아직 한국 교회가 그래도 성소가 많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인구 감소세가 뚜렷한 우리나라는 이미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12월 13일)은 '자선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자선을 베풀도록 1984년부터 매년 대림 제3주일을 '자선 주일'로 지내기로 정했습니다. 이날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불우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2차 헌금을 실시합니다. 자선 주일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00년 12월20일 이내수 아우구스티노 신부(38세)
- 1953년 12월17일 이선용 바오로 신부(56세)
- 1994년 12월14일 구건희 바르톨로메오 신부(73세)
- 2013년 12월20일 김진규 다니엘 신부(36세)

**대전교구 보좌주교에 한정현 신부 임명**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대전교구 한정현 스테파노 신부(만 49세, 2000년 사제 수품)를 대전교구 보좌주교와 모조토크리 명의주교로 임명하셨다고 주한 교황대사관이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6.25 전사자와 유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문의: 1577-562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가톨릭 교리상식**  
**서울주보에 물어보세요!**

참여기간 11월 28일(토)~12월 31일(목)  
 참여방법 서울주보 홈페이지(cc.catholic.or.kr) 접속  
 -> 홈페이지 하단 이벤트

더 자세한 내용 QR 스캔

**교구정일림**

**가톨릭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2021 새해특강: 현대미술에서 종교를 만나다'**  
 가톨릭예술아카데미에서는 종교와 현대미술의 만남을 주제로 새해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문의: 02)751-4107, 4110 홍보위원회  
 대상: 20대 이상 천주교 신자 및 일반인(신청수 300명)  
 회비: 4만원(4주 일괄신청) / 신청: 온라인 신청(네이버 카페 가톨릭예술아카데미) <https://cafe.naver.com/catholicartstory>  
 때: 2021년 1월6일~27일 매주(수) 19시30분~21시  
 곳: 줌(Zoom) 어플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강좌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가톨릭예술아카데미 참조

1월6일	빛을 따라 프랑스로 내려간 화가들 '사갈과 마티스를 중심으로'	강정모 (아츠엔트레벨 대표)
1월13일	초월을 향하여 '조각가 김중영'	박춘호(김동명미술관 학예실장)
1월20일	현대미술의 풍경 '동시대의 미술'	김찬웅(전시해설가)
1월27일	추상미술이 된 성서 칸딘스키, 뉴먼, 로스코'	하영유 수녀 (성심수녀회 수녀)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임정열 십자가전: 1전시실  
 조영선 목상전: 2, 3전시실  
 전시일정: 12월16일(수)~21일(월)

**12월 자살유가족을 위한 월례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분들  
 때: 12월19일(토) 10시30분 매월 세번째(토)  
 곳: 가톨릭회관(명동) 4층 413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집전: 유경춘 주교 / 유가족 면담 및 문의: 02)727-2495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달의 하느님의 종 '김장복'  
 때: 매월 셋째주(화) 12월15일 오전 11시(158회)  
 곳: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B2 성 정하상 기념경당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125차 미사('내 마음의 복년 봉당 갖기' 미사)**

때, 곳: 12월15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02)727-2420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대신리 본당 · 관후리 본당 / 미사 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지구별 상담소: 4성북지구(노동사목회관), 5지구(노원성당), 9지구(천호동성당), 13지구(삼성산성당), 17지구(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 / (월~금) 10시~18시  
 전화상담: 02)727-2137 / (월~금)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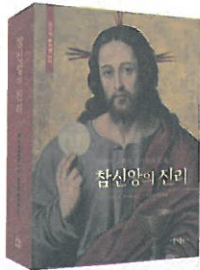
**직원모집**

**우이동 예수교년회 명상의집 사무실 직원 모집**  
 대상: 컴퓨터 능통한 분 / 문의: 02)990-1004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주방 근무자 0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12월16일(수)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문의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139나길 16-8)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돈보스코 여자 재속회	수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 살레시오회 3층	0505-1306-1505
울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도원	수시	수도원(경남 고성)	010-5301-1319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2월19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회	12월19일(토)	가톨릭회관 526호 아프리카 잠비아선교후원회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참신앙의 진리**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실천

존 오브라이언 지음 | 정진석 후기경 번역

1세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개신교를 포함하여 많은 그리스도교가 생겨났다. 그럼 여러 그리스도교 중에서 과연 참된 그리스도 교회란 어떤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톨릭 교회가 왜 참된 그리스도교인지 설명하며, 교리 전반에 관해 다루는 책이 출간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에 관해 오해하는 부분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그 책은 바로 《참신앙의 진리》다. 이 책은 마음을 터놓고 편견 없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교리를 바라본다면 가톨릭의 종교관이 이치에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가톨릭출판사 | 796쪽 | 2만7천원 | 문의: 02)6365-1851(www.catholicbook.kr)